

눈만 돌리면 편의점 ... “점주는 운다”



▲ 서울 지역 한 편의점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편의점 업계가 최근 5년간 ‘편의점 왕국’이라 불릴 만큼 외형적인 성장을 이뤄냈지만, 점주들의 실상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주요 유통업체 매출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국내 주요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의 점포 수는 4만6,662개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8년(3만4,664개)과 비교해 3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점포당 매출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3월 점포당 평균 매출은 5,137만 원으로 5년 전인 2018년(5,089만 원)과 비교해 0.9% 가량 늘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최근 ‘역대급 호황’을 맞은 본사와 달리 점주들의 사정은 오히려 악화한 셈이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과밀 출점’을 지적한다. 한 블록 건너 신규 점포가 우후죽순 들어서는데 점주 입장에선 매출에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편의점 출점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자율규약에 따라 최소 50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에 위반해도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없는 데다 거리 측정 방식이 모호해 유명무실하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출점 간격을 50m에서 100m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분기 재정적자만 올 한해 전망치 90% 넘어서

한국의 나라 살림 적자가 올해 1분기에만 54조 원까지 늘어나며 벌써 올 한해 예상 적자 규모(58조 원)의 90%를 넘어섰다.

1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날 ‘5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조 원 감소한 수준이다. 1분기 국제수입이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 원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가 7조1,000억 원 줄어든 가운데 법인세도 6조8,000억 원 감소했다. 1분기 정부 총지출은 1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했다.



▲ 수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뉴스1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3,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8조5,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90%를 넘어선 수준이다.

한국의 수출 감소세도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4억8,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 규모는 300억 달러에 육박했다.

강남 한복판에 초등 분교 설립 청원 등장

한국에서 오지애나 있을 법한 초등학교 분교를 강남 한복판에 지어달라는 요구가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은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를 상대로 ‘방일초등학교 분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삼익아파트에 거주할 때 배정받는 방일초등학교가 언덕을 따라 대로변을 지나 1.5km 넘는 곳에 떨어진 만큼 아이들의 통학 때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이 거리는 성인 남성인 기자가 걸어도 20분이 넘게 소요됐다.

또 재건축이 진행중인 방배삼익, 신동아, 임광아파트와 그랑자이, 래미안아트힐, 어울림 등 인근 아파트 세대수를 전부 합치면 5,000가구가 넘는 만큼 충분히 초등학교를 건립해야 할 명분도 있다는 것이 조합의 논리다. 이에 이들은 ‘서울형 분교’를 설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 방배삼익 재건축 사업 부지. 사진=헤럴드경제

소규모 학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서울형 분교모델 안’을 발표할 계획이기도 하다.

지속적으로 분교 설립 요구를 받아온 서초구청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